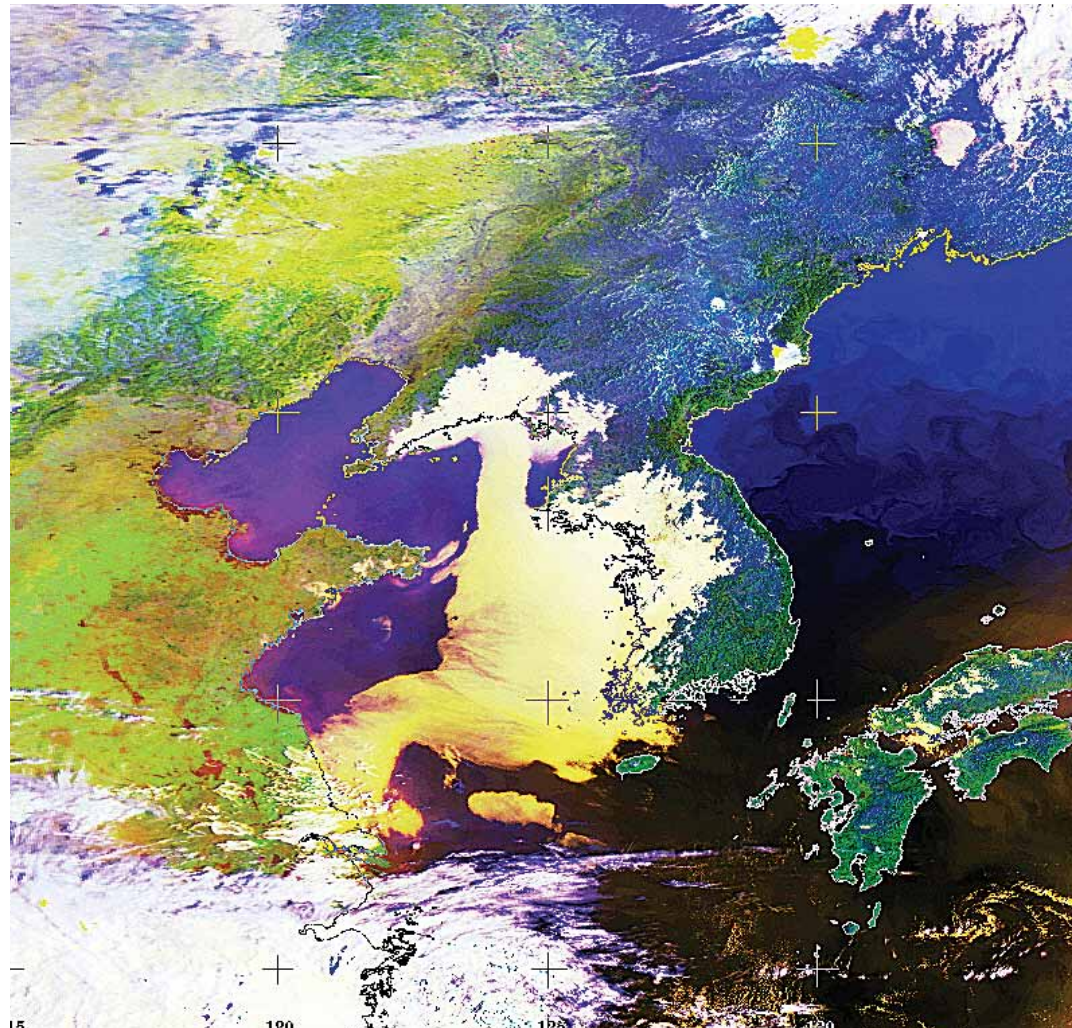


휴일 덮친 미세먼지...내일 다시 기승

중국발·국내 오염물질 뒤섞여 광주 3월 일평균 농도 '최고' 노약자 등 호흡기 건강 주의물



미세먼지의 공습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25일 오전 8시 29분 촬영한 위성 사진에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가 고스란히 찍혀 있다. 사진은 고려대기환경연구소가 확보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추위가 물러가자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간 광주·전남을 덮친 미세먼지는 중국대륙에서 남서풍을 타고 내려온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뒤섞여있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5일 한국환경공단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주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농성동 112.1μg/m³ ▲주월동 102.1μg/m³ ▲서석동 96.1μg/m³ ▲두암동 96.1μg/m³ ▲오산동 95.1μg/m³ 등을 기록했다.

광주는 이날 나쁨(51~100μg/m³)등급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농도는 95.1μg/m³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90μg/m³ 이상 2시간 지속할 시 발령되는 주의보 수준의 농도를 내내 유지했다.

이날 광주는 초미세먼지 첫 관측을 시작한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3월 일평균으로는 가장 진한 농도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전남의 동부권 역시 이날 밤 10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대행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26일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주춤하다가 27일 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전국 원전 인근 주민 11만여명 건강영향평가 9년만에 재 실시

영광 7300여명 포함

정부가 영광 한빛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해 9년 만에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사한다.

지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갑상선암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영광 지역 주민은 향후 재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79회 회의에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91~2011년 진행됐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윤옥 교수팀에 의뢰해 원전 인근 거주민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원전과 암 발생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는 원전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위험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신뢰성 논란이 일어났고 2013년부터 2년간 펼쳐진 후속 연구에서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은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원안위는 지난 1991년 조사에서 제외한 기준 암 환자, 소아·청소년 등 민감 연령층까지 포함

해 광범위하게 전수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연구는 원전 인근 5km 이내에 사는 만 20세 이상 건강한 성인과 그의 지역민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환자나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대상은 영광군 흥농읍 주민 7300여명(3400세대)을 비롯한 원전 인근 5km 내 거주하는 주민 1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아 및 청소년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므로 방사선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연령층이라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올 상반기 안으로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조사 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실제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해 5년 단위로 추적 조사를 이어간다.

조사는 개인별 설문조사를 통해 가족력, 음주·흡연 여부 등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고 거주지와 원전과의 거리, 지형 요인 등을 종합한 피폭선량 평가를 추가해 연구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현재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영광 주민 34명 등 전국 1336명이 소송 중으로, 이번 기회에 정부는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밝혀내고 주민 안전과 후손들을 위한 건강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전남, 지난해 결핵환자 발생률 1위

65세이상 41.8%...광주 703명 13위

전남이 인구 10만명 당 새롭게 발병한 결핵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결핵이 발병한 환자 수는 전남 1503명, 광주 703명이었다. 전남의 인구 10만명 당 결핵 신환자수는 79.6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명 중 55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광주는 48.2명을 기록해 전국 13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결핵 신환자 수는 지난 2015년 1657명, 2016년 1515명, 2017년 1503명으로 감소 추세다.

광주는 2015년 803명, 2016년 737명, 2017년 703명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결핵 신환자 2만8161명 중 1만1798명으로 41.8%에 달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이 결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분석했다.

지난 2011년 결핵환자가 3만9557명이 발생한 이후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으며 20대의 경우 2016년 3179명에서 2017년 2564명으로 19.3%나 감소했다. 외국인 결핵 환자는 1632명으로 전년(2123명) 대비 23.1% 줄어 들었다.

선거구에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장흥군수 입후보 예정자 검찰 고발

선거구 전체 세대의 87%에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한 장흥군수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흥군수 선거와 관련해 출판기념회 행사에 장흥군 2만266세대의 87%인 1만7615세대에 초청장을 제작·발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기획사 대표 B씨를 지난 22

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B씨와 사전 공모,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초청장 1만 7615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A씨의 초청장 대량발송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특히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행사장 규모를 감안, 사전에 주의사항을 설명했는데도 1000여 미만 규모의 행사장에 1만7000통이 넘는 초청장을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8 해질 18:49 달돋이 13:10 달질 02:41

따뜻한 오후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7/21	보성	맑음	3/20
목포	맑음	4/15	순천	맑음	7/22
여수	맑음	9/20	영광	맑음	4/16
나주	맑음	4/20	진도	맑음	4/16
완도	맑음	6/18	전주	맑음	6/20
구례	맑음	4/21	군산	맑음	5/16
강진	맑음	4/19	남원	맑음	3/21
해남	맑음	3/17	홍산도	맑음	5/13
장성	맑음	4/20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면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남서~서	0.5
	면바다(동)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서부	면바다(서)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목포	01:36	15:06	09:19	21:36
	11:04	23:14	04:33	17:13

◇ 생활지수

- 뇌졸중: 보통
- 높음
- 감기: 보통
-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27(화)	☀	28(수)	☀	29(목)	☀	30(금)	☀
7/21	☀	8/22	☀	9/22	☀	10/21	☀
						31(토)	☀
						6/20	☀
						4/1(일)	☀
						8/18	☀
						2(월)	☀
						12/17	☀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www.vitamin-house.com / 1588-8529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